

“Turn Around, 1등 방송 SBS!”

2017년 1분기 SBS미디어그룹 확대경영위원회 개최 각 사 과감하고 적극적 전략 수립

윤세영 회장 “이제는 실천이다!”

2017년 1분기 확대경영위원회가 1월 23일(월) 2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세영 SBS 미디어그룹 회장과 윤석민 부회장, 각 사 사장단이 참석한 이 자리는 각 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전략과제와 핵심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SBS는 올해 경영 기조를 ‘Turn Around, 1등 방송 SBS’로 잡고, 전략과제로 1) 공정방송, 2) 더 강한 콘텐츠즈, 3) 탄탄한 경영, 4) 용감한 도전 4가지로 정했다.

박정훈 사장은 “취재와 보도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시청자 신뢰를 회복하겠다. <SBS 8뉴스> 88만 시청자 수를 달성하여 1등 뉴스로 올려놓겠다. 수익성과 경쟁력, 화제성에서 타사를 압도하는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여 2049가 열광하는 1등 방송을 쟁취하겠다. 월화/수목 드라마 경쟁에서 확고한 1위를 유지하겠다. 프라임타임대 킬러콘텐츠를 기획하고 파워콘텐츠를 육성하겠다. 파워FM은 1위를 유지하고 러브FM은 5위 이내로 도약하겠다. 미디어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흑자경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지상파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는 데 전력하겠다. UHD 본방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BS 미디어넷은 1) 생존 조건 확보, 2) 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 3) ‘하고잡이’가 넘쳐나는 조직을 3대 전략과제로 정했다. 김계홍 사장은 “뉴미디어를 확대하고 커머스 베이스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정부·지자체를 연계한 비즈니스를 확대하겠다. 경영편성, 효율적인 비용 집행, 협찬과 재판매 확대를 통해 SBS 스포츠와 SBS 골프의 수익 구조를 혁신하겠다. CNBC는 이슈 대응력을 키우고 CEO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보도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소통과 적절한 보상으로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SBS 콘텐츠허브는 창사 이래 매출 및 수익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 신사업 및 신시장 개척과 도전, 2) IP 확보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 3) 경영효율과 조직역량 강화를 3대 전략과제로 정했다. 유종연 사장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바일 사업자와 연계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화 모델 기반을 구축해 수종 사업으로 발굴하겠다. MD 사업, 홈쇼핑 프로그램의 사업화, 직접 투자를 통해 공격적으로 사업 참여도를 확대하겠다. 또한 뮤직 연합 플랫폼, 동남아 채널/홈쇼핑 사업, 일본 유통사업, 자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하여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1) 매출 및 마켓 셰어 극대화, 2) 영업 역량 고도화, 3) 규제 완화 추진 및 사업 영역 다각화, 4) 조직문화 혁신을 4대 전략과제로 정했다. 허인구 사장은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판매 제도를 혁신하여 매출 및 마켓 셰어를 극대화하겠다. 2015년 달성한 라디오 최고 매출 기록을 경신하겠다. 본부별, 팀별, 개인별 경쟁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영업 역량을 고도화하겠다. 중간광고 등 차별규제를 철폐하는 데 노력하고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SBS A&T는 미술·영상·기술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을 키워서, SBS의 1등 방송 달성에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A&T는 3대 전략과제로 1) 고품질 미술 제작, 2) 차세대 방송(UHD) 시스템 안정화, 3) 전문성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로 정하고 SBS의 드라마에 ‘Art’를 입히고 예능에 ‘Technology’를 덧씌워 한층 업그레이드 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만 사장은 “세트 디자인과 CG VFX 등 미술 분야의 제작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드론·VR 같은 특수 촬영 전문가 양성, 본사와 UHD 연구반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차세대 방송 시스템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각 사 사장단의 발표가 끝나고 윤석민 부회장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대세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독과점이 우리를 안이하게 만들었고, 규제를 핑계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규정해 오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런 반성과 인식, 태도의 변화를 바탕으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과감한 Risk Taking을 시도하자”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각 사가 세운 2017년 계획을 성과의 기준이 되는 목표 및 프로젝트 단위로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1/4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내자”고 주문했다.

윤세영 회장은 “올해 각사의 매출목표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우리의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작년 말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진용을 갖췄고, 이번 사업계획을 통해 전략, 전술을 확정했으니 이제 창의를 도전정신으로 과감히 실천하자”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그룹의 사업구조가 SBS 중심, 콘텐츠 재활용 중심이었다가, 올해는 계열사들이 독자 생존을 목표로 자율, 각자도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Turn Around라는 용어의 정의에 맞게 실천을 통해 개혁, 혁신의 기틀을 잡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신입사원 21명 발령 “지금의 벅찬 마음 잊지 않습니다!”



경영 박민우(경영기획팀), 허승하(글로벌제작사업팀)
 양유성(PR팀)
기술 윤여향(송출기술팀), 신지엽(기술인프라팀)

드라마PD 김문교, 장영석, 김재홍
아나운서 이인권, 주시은
라디오PD 김서연

기자 안상우, 박찬근, 이현영(이상 시민사회부)
교양PD 조상연, 이한기, 손정민
예능PD 박상영, 안병욱, 윤주호, 김남중

2017년 2월 1일(수), SBS의 신 성장 동력 21명의 신입사원이 사령장을 받았다. 사령장 수여식에서 박정훈 사장은 21명 전원이 3개월간의 인턴십 평가를 통과해 사령장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하며 “입사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장점만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회사 생활을 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2박 3일의 연수를 거쳐 2월 6일(월) 소속 부서에 배치되며 직종별로 1~2명의 멘토로부터 1년간 멘토링을 받게 된다. 신입사원들은 SBS에 입사하게 된 것에 대해 “생소하면서도 몽글하다(조상연)”,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함께 회사를 다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박찬근)”, “과분한 자

리에서 매일 스스로 얼마나 부족한지를 실감하고 있다(이현영)”, “3대가 덕을 쌓아서 들어온 것이라 생각한다. 조상님께 감사하다(이인권)” 등의 소감을 말했다. 신입사원들이 입사 전 바라본 SBS는 “사회적 메시지를 세련되게 표현하여 눈길을 끌 줄 아는(손정민)”, “경쟁력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이한기)”,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김남중)”, “사람 냄새 나는 예능으로 웃음을 넘어 감동을 주는(박상영)”, “젊고 합리적인(김문교)”, “지상파 중 가장 세련되고 젊은 감각을 지닌(허승하, 신지엽)”, “나의 인생드라마를 만들어 낸(장영석)”, “젊고 생기발랄한 이미지지만 반드시 해야 할 말은 정색하고 하는(김서연)”, “방송사 준비생들 사이에 가고

싶은 회사 1순위(주시은)”의 방송사였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느낀 SBS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안병욱, 박민우)”, “시스템을 잘 갖췄다(윤주호)”, “본부장도 ‘형’이라고 부를 수 있고 막내 사원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김재홍)”,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난(양유성)”, “나도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안상우)”, “선배들이 치열하게 만들어 온 결과물(윤여향)”이었다. 신입사원들은 그동안 믿고 기다려준 가족과 친구, 인턴 기간 중 함께 고생한 동기와 따뜻하게 이끌어준 선배들에게 고마움과 단단한 각오의 말을 전하며 연수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SBS 8뉴스> 뉴스룸, '입체적이고 분석적인' 뉴스에 걸맞은 리노베이션

1월 30일(월)부터 <SBS 8뉴스>가 새롭게 바뀐 뉴스룸에서 진행되고 있다. SBS는 '입체적이고 분석적인 뉴스', '스토리텔링이 있는 깊이 있는 뉴스'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뉴스룸 세트를 개선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뉴스룸의 특징은 먼저, 지난 달 <SBS 8뉴스> 개편으로 스튜디오 기자 출연 코너가 증가함에 따라 앵커 뒷배경의 일자형 영상 장비를 ㄷ자 형 분할 배치 구성으로 전환, 다양한 동선의 화면이 가능해졌다.

이는 현장 중계차 연결과 출연 기자의 뉴스 분석 화면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좀 더 입체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데 용이하다. 최근 <SBS 8뉴스>는 '사실은' 코너를 비롯해 기자가 직접 출연해서 뉴스를 분석하는 리포트를 4~5개로 확대, '깊이 있는 뉴스'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로, 일자형 테이블을 원형 테이블로 개선, 자연스럽게 원만한 토론이 가능해졌다. 일자형 테이블의 경우, 앵커와 출연자의 시선 처리가 부자연스러웠던 반면, 원형 테



이블은 출연자 배치의 제약이 없어 여러 명이 자연스러운 토론을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뉴스를 지향하고, 동서남북·남녀노소 모두의 시각을 뉴스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자막과 타이틀 디자인은 '물'(투명함, 깨끗함, 재탄생)과 '파동'(정보의 확산, 네트워크), '프리즘'(SBS 뉴스의 그래픽 모티브)의 세 가지 키워드를 구현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더불어 선진국 뉴스 세트의 조명을 비교 분석해서 밝은 환경의 세트로 보완했으며, 블랙과 화이트로 심플하고 세련된 컬러 톤을 유지했다.

인터뷰
이 사람



<TV 동물농장> 800회...

“새로운 트렌드와
관심사 찾아
16년간 계속 변화해나”

이경홍 PD, 이덕건 프로듀서



2001년 시작한 <TV 동물농장>이 1월 29일 800회를 맞았다.

함께 했던 PD들과 작가분들의 땀과 수고 덕분이다. 그동안 방송된 아이템만 3천여 개다. <동물농장> 가족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 팀에는 유독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이 많은데, '동물과의 교감' 때문에 <동물농장>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한다. 제작을 하다 보면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교감이 되는구나'하고 느낄 때가 많다. 그러면 동물의 몸짓, 표정 그리고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작진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진다.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전하고 싶다. 그래서 동물은 단지 예쁘고 귀여운 대상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체임을 함께 느끼고 싶다.

동물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다가 사라져갔다.

<TV 동물농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힘은 무엇인가?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첫 번째다. 방송을 위한 촬영은 동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동물의 모습을 전하기 힘들다.

또 <동물농장>은 새로운 트렌드와 관심사를 찾아 16년간 계속 변화를 시도해왔다. 초창기엔 신기하고 귀여운 동물, 그다음엔 좀 더 신기한 동물들을 찾아 해외로도 많이 나갔다. 이후에는 동물의 표정과 감정에 집중하여 사람처럼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요즘은 동물을 통해 위로를 얻고 잃어버린 감성을 되찾게 되는 아이

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만들어 내면서 시청자와 소통하려고 한다.

취재 대상이 동물이라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동물들의 마음을 제작진이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부르게 판단하기보다 계속 관찰하는 우직함을 택하고 있다. 오래 지켜보다 보면 그들의 상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PD, 작가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촬영은 계속 이어지고,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쯤에서 멈추자”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편집의 스킬보다 중요한 것은 동물들이 보여주는 진짜 행동이다.

기억에 남는 아이템은?

2010년 1월 방송된 엽기적인 연쇄 학대범 사건은 동물 학대를 <TV 동물농장>에서 제대로 다룬 최초의 사건이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8마리의 개가 끔찍한 학대를 받고 버려졌다. 라이터로 불태워진 얼굴, 실명한 눈, 뾰힌 발톱, 성한 곳 하나 없는 온몸... 게다가 한 녀석은 뱃속에서 발견된 날카로운 면도날 때문에 사망하고야 말았다.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을 잡아 경찰로 넘겼는데, 당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판례상으로는 수십만 원의 벌금형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덕분에 동물보호법의 허술함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했고, 제작진도 꾸준히 동물 보호와 동물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지난해 방송한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 편이다. 온갖 오물들에 뒤엉킨 채 좁디좁은 뜰 안에 뽁뽁하게 갇혀있던 개들의 참혹한 모습과 개들의 인위적인 교배와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시청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강아지 공장에서 개들을 구조해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었는데, 다행히 이전의 아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구조된 개들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려고 한다.

동물의 모정에 대한 방송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날개깃이 부러져 낙오된 새끼를 찾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꽃집을 찾았던 직박구리의 모정은 많은 시청자들을 울리고 감동을 주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깃털이식수술을 받은 새끼 새가 어미와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던 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던 꽃집주인과 이웃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끝으로 한 마디

많은 사람들이 <동물농장>을 함께 만들어왔다. 특히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동물단체와 수의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로는 각종 전문가도 모셔야 한다. SOS를 보내면 언제나 한걸음에 달려와 주시는 그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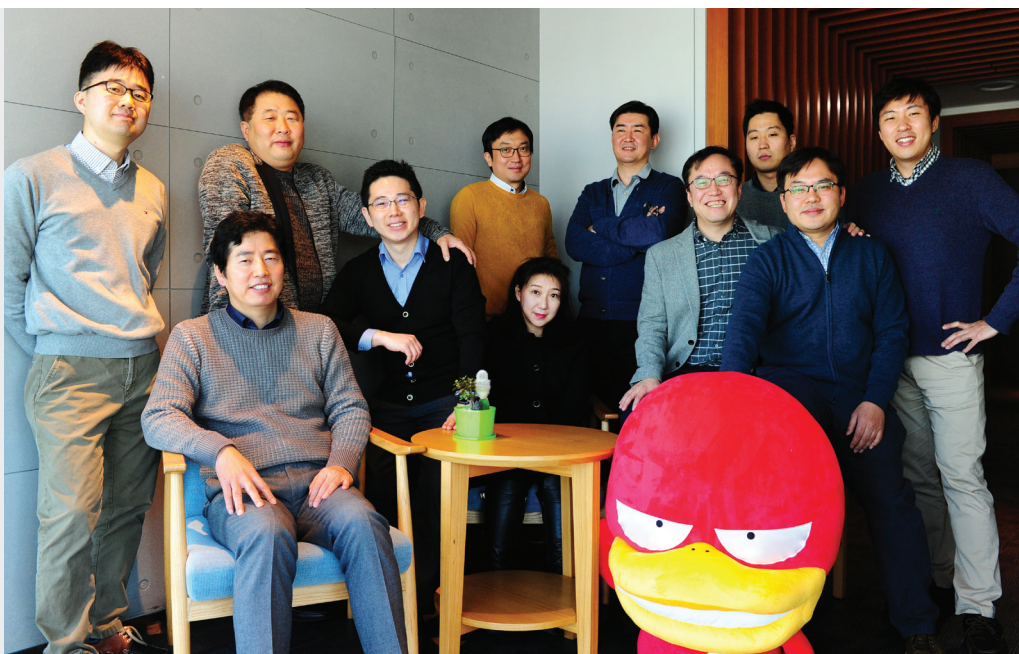
과거 동물을 구하러 가면 사람도 아니고 동물인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며 항의를 하시는 주민들도 많았는데, 이제 <동물농장>에서 왔다고 하면 너도나도 같이 도와주신다. 생명의 소중함을 전한 우리의 노력이 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중한 제보를 보내주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제보는 언제나 성실히 알아보겠다.

부서
탐방

SBS의 지식재산권으로
새로운 먹거리 찾아
고군분투...

“일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미디어비즈니스센터 IP사업팀



작년 8월 신설됐다. 무슨 일을 하는 팀인가?

부서 이름을 대면 옆에 아홉은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인 줄 안다. 하지만 IP사업팀의 ‘IP’는 ‘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이다.

SBS에는 많은 지식재산권이 존재한다. 사우들이 만든 영상, 기사 원고, 캐릭터, 로고, 콘셉트, 포맷 등 사소한 모든 것에 지식재산권이 존재하고, IP사업팀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다. 또 올해부터 계열사 콘텐츠 유통, 유료방송 재송신, 프로그램 초·재방권 판매 등의 업무도 이관 받아서 맡고 있다.

단일 부서로는 아마 회사 내에서 가장 큰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일 것이다.

성과가 있는지?

사업하는 부서는 ‘회사 통장에 돈이 꽂혀야’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팀원이 뚝뚝 뭉쳐서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번 사보에 소개된 인도네시아 채널 사업도 과거 같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사업이다. 그 외에도 반려동물 프로젝트, 브랜드 스캐어 구축 사업, 각종 프로그램 연계 사업, 푸티지 광고 판매 등 다양한 사업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성과를 내면 사보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겠다.

팀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팀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성원 팀장은 팀을 하나로 이끌고 크고 작은 사업 기회를 성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과거에 ‘한 미모’했다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안다.

민인식 선임매니저는 반려동물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아 지엄하게 맡은 바를 충실히, 그리고 저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핸드폰 배경화면이 ‘짱구 아빠’ 인데 싱크로율 100%다. 유영석 매니저는 모르는 사람도 그와 한 시간만 대화하면 빠져들게 하는 재주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유영석 매직’이라고 부른다. 인도네시아도 그의 매직에 폭 빠져 있다.

감도경 선임매니저는 기존 콘텐츠사업의 영역을 넘어서서 새로운 개념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실현되면 우리의 Life Style이 바뀔 것이다.

한광섭 담당은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싸 들고 IP사업팀으로 왔다. 일당백의 전력으로 사업 파트너를 만나느라 늘 회사에 없다. 반려동물 프로젝트도 담당한다. 조세현 매니저는 글로벌 유통 전략 및 계약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콘텐츠 유통의 길목에서 날카로운 그의 레이더를 벗어날 길이 없다.

김수환 매니저는 소속이 미디어비즈니스센터 전체다. 주변 부서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김수환 매니저를 찾는다. 인도네시아 채널, 푸티지 광고 판매 업무, 반려동물 프로젝트 등은 그에게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

조재홍 매니저는 프로그램 연계 사업, 브랜드 스캐어 프로젝트, 반려동물 프로젝트 등을 담당한다. 그를 WISE에서 검색해 보면 담당 업무에 “일이 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윤종세 매니저는 미주 콘텐츠 유통 담당(KCP)과 재송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힘들 때마다 갓 백일 지난 예쁜 딸을 생각하며 파이팅을 외친다.

황상준 매니저는 브랜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SBS의 많은 영역에 그의 손길이 닿아 있다. 미혼이지만 골키퍼는 있다.

미디어넷에서 파견 온 박재영 매니저는 초·재방권 판매를 담당한다. 까다로운 파트너들만 상대해서인지 고수의 아우라가 느껴진다.

방송사에서 사업 분야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SBS의 버팀목이었던 광고 수익은 계속 줄어들고, 재송신 수익과 계열사로부터 받는 로열티 수익은 한계치에 다다랐다. 이런 상황에서 IP사업팀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해 나갈 것이다. 국내보다는 해외,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더 큰 기회를 찾겠다. 열심히 뛰다보면 IP사업팀을 ‘인터넷 선 갈아주는’ 팀으로 오해하는 사원도 없어지지 않을까?

‘수저와 사다리’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2016 창사특집 SBS 대기회> ‘수저와 사다리’(연출: 이동협/사진 왼쪽)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수저와 사다리’는 ‘수저 계급’ 사회 현실에서 대한민국 불평등 지수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 다큐멘터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의 불평등, 소득 양극화 등의 다소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으면서도 쉽게 접근했고, 드라마, 관찰 카메라, 게임쇼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점이 돋보였다. 또 전체적인 기획과 구성이 신선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월 19일(목)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2016 하반기 ‘시청자위원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1월 25일(수) 목동 SBS 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2016 하반기 시청자위원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시상식이 열렸다.

TV 보도·교양 부문 수상작 <SBS8뉴스> ‘경제돌보기’(김용태)는 복잡한 경제 현안을 생활밀착형으로 보도하여 지식과 정보 습득에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박근혜 게이트 특집 ‘대통령의 시크릿’(이근별), ‘최태민 일가는 무엇을 꿈꿨나’(이광훈)는 국정농단사태의 해결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함을 역설하여 시사 프로그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잘 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김박)는 음식을 통한 사람의 관계를 다루며 진한 감동을 주었다.

드라마 부문 수상작 <낭만닥터 김사부>(유인식, 박수진)는 탄탄한 구성과 출연진들의 연기력으로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찬 현 시점에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었다. 라디오 부문 수상작 <김창렬의 올드스쿨> ‘10주년 특집 스쿨 봉사단’(황건희)은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의지를 끌어냈다.



※ 본 사보는 SBS 신뢰체로 만들었습니다.